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8. 4.

대 한 민 국 정 부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요 약

1. 일반 현황

□ **(추진 배경)** 한·미 FTA는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 고용, 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은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며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FTA를 통해 안정적 교역 기반을 확보

○ 미국은 전 세계 상품의 각축장이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로 세계 시장 변화와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FTA를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제도를 [illegible]로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협상 경과)** 한·미 FTA는 2006년 6월 공식협상 개시, 2007년 4월 협상타결, 2010년 12월 추가협상 타결, 2012년 3월15일 공식 발효

○ 한·미 FTA 논의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의 중장기적 과제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하면서 시작, 2005년 한·미 FTA 사전 점검실무회의와 통상장관회담, 2006년 2월 공청회를 거쳐 추진 결정

○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 후 2007년 4월 협상 타결되었으나, 양국의 국회비준 지연과 미측의 추가협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1~12월 추가협상 진행

□ **(주요 내용)**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 후 관세철폐(추가협상 결과), 민감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등 예외적 조치

○ 서비스·투자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보, 일부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 법무서비스 3단계, 회계·세무는 2단계 개방/저작권보호기간 50→70년 등 지재권보호 강화/방송채널용사업(PP) 간접투자 제한 철폐 등

<한·미 FTA 상품(섬유, 농산물 포함) 양허 내용>

	한국				미국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달러)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달러)	
		(%)		(%)		(%)		(%)
즉시 철폐	9,033	80.0	21,778	77.6	8,623	82.1	28,280	69.2
2~3년 철폐	765	6.8	3,362	12.0	366	3.5	508	1.2
(3년 이내)	9,768	86.8	25,140	89.6	8,989	85.6	28,788	70.4
5년 철폐	589	5.2	842	3.0	756	7.2	10,346	25.3
(5년 이내)	10,357	92.0	25,982	92.6	9,745	92.8	39,134	95.7
6~7년 철폐	44	0.4	122	0.4	92	0.9	31	0.1
9~10년 철폐	667	5.9	1,240	4.4	586	5.6	1,719	4.2
(10년 이내)	11,068	98.3	27,344	97.4	10,423	99.2	40,885	100.0
10년 초과	161	1.4	477	1.7	82	0.8	2	0.0
계절관세/현행관세	12	0.1	213	0.8	-	-	-	-
양허제외	16	0.1	26	0.1	-	-	-	-
합계	11,261	100.0	28,060	100.0	10,505	100.0	40,887	100.0

주: 수입액은 2003~05 평균기준; 추가협상 결과 반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 한·미 FTA 주요 내용

<한·미 FTA 추가협상 주요 내용>

품목		적용	합의내용
합의문서			
자동차	승용차	미국	발효후 4년간 유지후 관세철폐
		한국	발효즉시 4% 인하, 4년 유지후 철폐
	전기차	미국	5년간 균등철폐
		한국	발효즉시 4%로 인하, 4년간 균등철폐
	픽업트럭	미국	10년 철폐유지, 단 발효 8년차부터 균등철폐
	세이프가드	공통	한·EU FTA 세이프가드 6개 절차요소 반영한 제도 도입
	안전기준	한국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기준 충족시 완전동등성 인정
냉동돼지고기		한국	냉동기타 목살, 갈비살(25%)에 대해 '12년부터 4%씩 관세감축하여 '16년 1월 1일 관세철폐
의약품허가특혜연계		한국	36개월간 이행의무 자체를 유예
합의의사록			
자동차연비·CO2기준		한국	제작사당 2009년 판매대수 기준 4,500대까지 19% 완화된 기준 적용
기업내전근자비자		미국	기존 사업체근무자를 위한 비자 유효기간 3년→5년으로 연장; 사업체 신설을 위한 근무자 비자유효기간 1년→5년으로 연장

자료: 대한민국정부, 알기 쉬운 한·미 FTA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상품 수출)** 한·미 FTA 발효후 5년 간(2012～16년)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 속에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2.5% 감소했으나, 대미 수출은 연평균 3.2% 증가

○ 한국의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전 5년(2007～11년) 평균 10.9%(473.2억 달러)→발효후 5년 평균 12.2%(657.2억 달러)로 증가

○ 미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미 FTA 발효전 5년 평균 2.5%에서 발효후에는 평균 3.0%로 증가

○ 주요 수출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산업으로 한·미 FTA 발효이후 자동차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전기·전자의 수출은 감소

<한국의 대미 수출 현황(주요 산업, 백만 달러)>

	평균수출액		증감액	증감율	미국시장 점유율(%)	
	2007～11	2012～16			2007～11	2012～16
자동차	10,6[illegible]	20,895 (28.8%)	10,239	96.1%	5.3%	7.1%
전기·전자	[illegible] (14.0%)	12,331 (11.4%)	-922	-7.0%	6.1%	4.5%
기계	8,856 (10.3%)	12,025 (10.5%)	3,169	35.8%	2.9%	3.2%
화학·고무·플라스틱	6,836 (7.6%)	8,955 (7.5%)	2,119	31.0%	2.3%	3.0%
철강	3,235 (9.7%)	5,275 (13.3%)	2,040	63.1%	4.6%	6.3%
전체	47,320 (10.9%)	65,720 (12.2%)	18,400	38.9%	2.5%	3.0%

주: ( )는 각 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http://comtrade.un.org/)

□ **(상품 수입)** 한국의 대세계 수입은 한·미 FTA 발효후 5년간(2012～16년) 연평균 6.0% 감소한 반면 대미 수입은 연평균 0.1% 감소

○ 한국의 대미 수입비중은 2007년 10.5%에서 2011년 8.5%, 2013년 8.1%까지 하락했으나, 2014년 증가세로 전환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10.7%를 기록

○ 주요 수입산업은 농축산물(곡물 및 과채, 육류 및 낙농), 기계, 화학·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고무·플라스틱, 전기·전자, 자동차, 기타수송기기 등이며, 한·미 FTA 발효 이후 육류 및 낙농, 자동차, 화학·고무·플라스틱 수입이 크게 증가

<한국의 대미 수입 현황(주요 산업, 백만 달러)>

	평균수입액		증감액	증감율	미국의 점유율	
	2007~11	2012~16			2007~11	2012~16
곡물·과일·채소	2,572	2,203	-369	-14.4%	50.3%	32.4%
육류·낙농	837	1,494	657	78.5%	28.0%	34.7%
기계	10,400	11,657	1,218	11.7%	15.9%	15.1%
화학·고무·플라스틱	6,834	8,888	2,054	30.1%	10.3%	11.1%
전기·전자	5,033	4,994	-39	-0.8%	10.4%	8.5%
자동차	714	1,617	903	126.4%	8.2%	11.6%
기타수송기기	2,539	2,938	399	15.7%	39.9%	42.8%
전체	38,102	43,710	5,608	14.7%	9.2%	9.1%

자료: UN Comtrade(http://comtrade.un.org/)

□ **(무역 수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평균 92.2억 달러 흑자에서 발효후(2012~16년) 220.1억 달러 흑자로 138.8% 증가

○ 미국을 제외한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같은 기간 135.4억 달러에서 3[illegible]억 달러로 179.6%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한·미 FTA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확대 사이의 연관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 산업별로 자동차와 철강은 흑자 확대, 전기·전자는 흑자 축소, 기계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육류 및 낙농과 가공식품은 적자 확대

□ **(대미 직접투자)**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평균 46.2억 달러에서 발효후(2012~16년) 평균 74.5억 달러로 61.2% 증가했고,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의 비중도 18.9%에서 24.2%로 상승

○ 한·미 FTA 발효후 5년 평균 투자액은 서비스업 55.5억 달러, 제조업 8.1억 달러로 발효전 대비 각각 101.7%, 19.8% 증가했으나, 1차산업은 9.2억 달러로 15.2% 감소

○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1년과 2016년 급증세를 보이는데, 2011년 광업 부문, 2016년 부동산임대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 대규모 투자 발생; 제조업 투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화학, 전자 산업에서 크게 증가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한·미 FTA 발효후 미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평균 16.7억 달러로 발효전 평균 5.9억 달러 대비 184.2% 상승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총액은 같은 기간 70.5% 증가하여, 전체 투자 유치액 중 미국의 비중은 8.3%에서 13.9%로 상승

○ 한·미 FTA 발효후 미국으로부터의 평균 투자유입액은 서비스업 10.3억 달러, 제조업 6.4억 달러로 발효전 대비 각각 157.8%, 264.6% 증가;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정보통신,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제조업에서는 운송용 기계와 화학공업에 미국의 투자가 집중

□ **(서비스 수출)**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11년 평균 152.0억 달러에서 2012~16년 평균 165.6억 달러로 9.0% 증가

○ 주요 수출 분야는 운송,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등이며, 한·미 FTA 발효이후 기타사업서비스 대미 수출이 2007~11년 평균 48.4억 달러→2012~16년 평균 64.9억 달러로 34.1% 증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입증가율(23.4%)이 대세계 수입증가율(18.7%)을 능가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총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평균 2.2%→2.3%로 0.1%p 상승

□ **(서비스 수입)**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입은 2007~11년 평균 248.5억 달러에서 2012~16년 평균 291.4억 달러로 17.3% 증가

○ 한국의 주요 대미 수입 분야는 운송, 여행,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 등이며, 한·미 FTA 발효이후 지식재산권사용료와 기타사업서비스 수입이 2007~11년 평균 대비 각각 44.6%, 23.2% 증가

○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증가율(41.3%)이 미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32.3%)을 상회하여 미국의 서비스 총수출에서 한국의 비중은 2007~11년 평균 2.6%→2012~16년 2.8%로 0.2%p 증가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서비스 무역수지)** 한국의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는 2007~11년 평균 96.5억 달러 적자에서 2012~16년 평균 125.8억 달러 적자로 규모가 확대

○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수입 증가에 따라 2012년 전년대비 13.6% 확대된 124.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후 서비스 수지 적자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5년 140.9억 달러, 2016년 142.8억 달러로 확대

○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적자를 보인 가운데,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여행에서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효과의 정의)** FTA의 경제적 효과는 넓은 의미에서 양국간 경제교류 및 협력 관계의 증진, 다양한 기회요인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배타적 특혜관세 부여에서 발생하는 가격효과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광의의 FTA 효과: 양국 경제관계의 제도적 강화에 따른 시장환경의 전반적 개선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역을 증진; 기존 무관세품목, 양허제외 품목을 모두 포함한 전체 품목에서 발생하는 FTA 효과를 추정

○ 협의의 FTA 효과: 협정문상 관세감축과 철폐에 따른 직접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은 양국간 교역을 증대; 분석기간 관세감축이 발생한 것으로 원래 무관세품목, 관세유예 및 양허제외 품목을 제외한 관세수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효과를 추정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품목의 대미 교역비중(2012~16년, %)>

	농축수산식품	광업	제조업							계
			섬유·기타	화학	철·비철	수송	전기·전자	기계	소계	
수출	98.7	100.0	80.5	96.3	38.8	34.1	6.8	89.0	50.2	50.7
수입	98.2	100.0	61.3	88.8	84.0	52.1	5.7	86.1	69.4	74.8

주: 1) HS 6단위 기준으로 특혜관세 대상품목 선별
2) 수출(수입)비중은 한·미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이 산업의 총수출(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수출 효과)** 한·미 FTA 발효후(2012～16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2007～11년)보다 연평균 183억9,900만 달러 증가했고, 이중 한·미 FTA에 따른 수출증가는 31억6,200만～66억2,900만 달러로 17.2～36.0%를 차지

○ 산업별로는 제조업 수출이 한·미 FTA 전체 수출 효과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축수산식품업과 광업에서도 소폭의 수출증대 효과 발생

○ 세부제조업 중 섬유·의복·기타제조업과 전기·전자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수출 효과 발생

<한·미 FTA의 수출 효과(백만 달러)>

	FTA의 수출 효과				FTA이후 연평균 증감액(B)	FTA효과의 비중(A/B)	
	증가율		증가액(A)				
	광의	협의	광의	협의		광의	협의
농축수산식품업	19.6%	20.1%	87.9	90.2	260.7	33.7%	34.6%
광업	112.9%	112.9%	2.3	2.3	3.1	72.5%	72.5%
제조업	13.9%	6.5%	6,539.3	3,070.0	18,135.5	36.1%	16.9%
섬유·의복·기타제조업		-	-	-	303.2	-	-
화학·고무·플라스	22.7	13.3%	1,550.4	1,249.9	2,119.2	73.2%	59.0%
철강·비철금속	9%	9.5%	847.4	337.0	2,386.0	35.5%	14.1%
수송기기	7.9%	9.2%	3,282.2	1,083.1	11,080.4	29.6%	9.8%
전기·전자	-	-	-	-	-922.0	-	-
기계	9.7%	4.5%	859.2	399.9	3,168.6	27.1%	12.6%
전체	14.0%	6.7%	6,629.4	3,162.4	18,399.3	36.0%	17.2%

주: 1) '광의'는 전 품목,'협의'는 특혜관세 적용품목에서 발생한 FTA 효과를 의미; 2) '증가율'은 FTA 발효전 대미 연평균 수출액 기준이며, '증가액'은 증가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 3) FTA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FTA 발효후 한국의 대미 연평균 수출액에서 FTA 발효전 한국의 대미 연평균 수출액을 뺀 값

□ **(수입 효과)** 한·미 FTA 발효후(2012～16년) 한국의 대미 수입은 FTA 발효전(2007～11년)보다 연평균 56억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중 한·미 FTA에 따른 수입증가는 20억4,700만～26억5,600만 달러로 36.5～47.4%를 차지

○ 산업별로 FTA에 따른 수입증가액은 제조업에서 가장 컸으나 수입증가율은 농축수산식품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세부 제조업 중 수송기기와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에서 한·미 FTA에 따른 수입증가가 발생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한·미 FTA의 수입 효과(백만 달러)>

	FTA의 수입 효과				FTA이후 연평균 증감액(B)	FTA효과의 비중(A/B)	
	증가율		증가액(A)				
	광의	협의	광의	협의		광의	협의
농축수산식품업	11.4%	11.4%	643.3	647.1	1,163.3	55.3%	55.6%
광업					165.0		
제조업	6.4%	4.5%	2,012.4	1,399.8	4,279.4	47.0%	32.7%
섬유·의복·기타제조업					-27.4		
화학·고무·플라스틱	12.3%	9.9%	842.1	680.4	2,053.9	41.0%	33.1%
철강·비철금속					-227.9		
수송기기	36.0%	22.1%	1,170.3	719.4	1,302.2	89.9%	55.2%
전기·전자					-38.9		
기계					1,217.5		
전체	7.0%	5.4%	2,655.7	2,046.9	5,607.8	47.4%	36.5%

주: 1) '광의'는 전 품목,'협의'는 특혜관세 적용품목에서 발생한 FTA 효과를 의미; 2) '증가율'은 FTA 발효전 대미 연평균 수입액 기준이며, '증가액'은 증가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 3) FTA 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FTA 발효후 한국의 대미 연평균 수입액에서 FTA 발효전 한국의 대미 연평균 수입액을 뺀 값

□ **(투자 효과)** 한·미 FTA 발효후(2012～16년) 미국으로(부터) 직접투자의 유출과 유입이 발효전(2007～11년) 대비 각각 평균 61.2%, 184.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미 FTA의 기여도는 35.0%와 29.3%로 높은 수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FTA 발효전과 비교하여 발효후 평균 28억2,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중 한·미 FTA 효과가 9억8,900만 달러로 35.0%를 차지

○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은 FTA 발효전과 비교하여 발효후 평균 10억7,900만 달러 증가했고, 이중 한·미 FTA 효과가 3억1,600만 달러로 29.3%를 차지

<한·미 FTA의 투자효과(만 달러)>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대미 직접투자 효과						
FTA 이후 연평균 증가액(A)	282,794	-79.5	-16,416	13,404	280,127	5,759
FTA 효과(B)	98,911	74.1	-	2,142	96,695	-
FTA 효과의 비중(B/A)	35.0%	-	-	16.0%	34.5%	-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FTA 이후 연평균 증가액(A)	107,938	0.4	-9.2	46,162	62,935	-1,151
FTA 효과(B)	31,630	-	-	26,724	4,906	-
FTA 효과의 비중(B/A)	29.3%	-	-	57.9%	7.8%	-

주: 1) FTA 발효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한·미 FTA 발효후(2012~16년) 양국간 연평균 직접투자에서 FTA 발효전(2007~11년) 연평균 직접투자를 뺀 값; 2) 기타산업은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한·미 FTA에 대한 영향이 대미 직접투자에서는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된 반면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의 경우 제조업 부문에서 크게 발생

□ **(성장 및 후생 효과)** 한·미 FTA에 따라 5년간(2012~16년) 한국의 실질 GDP가 추가적으로 0.27～0.31%, 소비자 후생은 40억8,700만～54억6,900만 달러 증가

<한·미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실질 GDP		소비자 후생	
광의	협의	광의	협의
0.31%	0.27%	54억6,871만 달러	40억8,674만 달러

주: 1) '광의'는 전 품목, '협의'는 특혜관세 적용품목에서 발생한 FTA 효과를 의미; 2) 한·미 FTA 이행 5년간(2012~16년) 누적 효과

□ **(생산 효과)** 한·미 FTA에 따른 양국간 교역 변화에 의해 국내 생산은 FTA 발효전(2007～11년)과 비교하여 발효후(2012～16년) 평균적으로 4조 1,760억～11조8,461억 원 증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한·미 FTA의 생산 효과(십억원)>

	생산 변화	
	광의	협의
전체 산업	11,846.1	4,176.0
농축수산식품업	-225.5	-265.9
광업	11.8	4.6
제조업	10,442.6	3,859.1
섬유·의복·기타제조업	491.1	151.9
화학·고무·플라스틱	2,102.7	1,326.9
철강·비철금속	2,804.6	1,010.7
수송기기	3,376.6	677.8
전기·전자	307.0	100.5
기계	1,360.6	591.3
서비스업	1,617.2	578.2

주: 1) '광의'는 전 품목, '협의'는 특혜관세 적용품목에서 발생한 FTA 효과를 의미; 2) 한·미 FTA에 따른 양자간 교역변화에 의해 발생한 국내생산의 연평균 변화를 의미

□ **(고용 효과)** 한·미 FTA에 따른 생산 변화에 의해 이행 5년간(2012~16년) 국내 일자리는 16,803～57,463명 증가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한·미 FTA의 고용 효과(명)>

	고용 변화	
	광의	협의
전체 산업	57,463	16,803
농축수산식품업	-4,113	-4,848
광업	64	25
제조업	33,706	11,687
섬유·의복·기타제조업	3,778	1,170
화학·고무·플라스틱	3,787	2,389
철강·비철금속	6,370	2,296
수송기기	11,432	2,295
전기·전자	815	267
기계	7,524	3,270
서비스업	27,806	9,939

주: 1) '광의'는 전 품목, '협의'는 특혜관세 적용품목에서 발생한 FTA 효과를 의미; 2) 한·미 FTA 5년간(2012~16년) 누적 효과; 3) 한·미 FTA에 따른 생산변화와 취업계수를 사용하여 추정

□ **(서비스 무역에 미친 영향)**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 대미 수입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증가

○ 한·미 FTA 이후 양국간 상품교역확대의 영향으로 운송과 보험서비스의 교역 증가; 한·미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대미 저작권사용료 지급 증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에서 대미 수입 증가세 뚜렷

○ 한·미 FTA에서 한국이 추가 개방한 서비스 분야 중 법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에서 개방 효과 관측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3.1. 농축산업 부문

□ **(농축산물 양허내용)** 한·미 FTA는 농업부문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으로 농축산물 협상대상 품목 1,531개 세 번(HSK 기준) 중 98.0%가 관세 인하 품목이고, 수입자유화율은 97.9%

○ 민감품목 중 수확 및 유통시기가 뚜렷한 품목은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 보호;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양허제외; 쇠고기, 사과, 고추 등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농축산물 교역현황)** 교역액은 관세율 하락 및 TRQ 증량 등의 영향으로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연평균 67.6억 달러에서 발효후(2012～16년) 연평균 78.9억 달러로 16.6% 증가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전 63.6억 달러에서 발효후 73.0억 달러로 14.8% 증가; 전체 농산물 수입액 대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2016년 23.2%로 발효전 25.1%에 비해 1.9%p 하락

○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전 연평균 4.0억 달러에서 발효후 연평균 5.9억 달러로 46.7% 증가; 전체 농산물 수출액 대비 비중은 발효전 9.2%에서 2016년 10.7%로 성장

□ **(축산물 수입)** 한·미 FTA 발효후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57.8%, 수입량은 19.4% 증가

○ 한·미 FTA 발효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과 수입량은 발효전 대비 각각 124.2%와 8[illegible]% 증가했으나 미국의 광우병 발생 직전 수준인 24만9천톤에는 미달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과 수입량은 발효전 대비 43.0%, 22.8%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추세

○ 미국산 치즈와 분유 수입은 TRQ 증량과 관세 하락으로 발효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EU와 뉴질랜드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라 감소 추세

□ **(과일 수입)** 한·미 FTA 발효후 오렌지, 체리, 레몬, 포도 등 신선 과일류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81.9%, 수입량은 51.6% 증가

○ 관세하락의 영향으로 미국산 과일류 수입이 증가했으나 미국내 기후 및 작황의 영향을 받아 연간 실적의 변동은 큰 상황

□ **(곡물 수입)**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발효전 대비 수입액은 26.0%, 수입량은 31.5% 감소; 대부분 TRQ로 수입되고 FTA 이전에도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관세율 하락의 영향은 적은 편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식용 옥수수는 미국의 작황부진으로 발효전 대비 수입액 57.4%, 수입량 52.3% 감소; 식용 밀은 발효전 대비 수입액 13.8%, 수입량 7.4% 감소; 식용 대두는 TRQ 증량의 영향으로 발효전 대비 수입액 81.5%, 수입량 59.8% 증가

□ **(농축산업 생산피해 추정)** 한·미 FTA로 인해 연평균 1,951억 원, 5년 누적 9,753억 원으로 연평균 0.44%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부류별 피해액(생산액 감소)은 축산이 가장 많은 연평균 1,195억 원으로 농업 전체 피해의 61.2%를 차지, 다음으로 피해가 큰 부류는 곡물로 연평균 433억 원, 과실류 201억 원, 채소류 111억 원으로 추정

○ 한·미 FTA 영향평가(2011)에서 추정한 연평균 농업 피해액은 4,668억 원으로 본 연구의 결과인 1,951억 원과 차이

○ 분석기간, 농축산물 연평균 수입액은 1.76억 달러, 연평균 수출액은 0.2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53억 달러(5년 누계 7.64억 달러) 악화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다만, 농축산업 실제 생산액은 한·미 FTA 발효전(2007~11년) 연평균 38.3조 원에서 발효후(2012~16년) 44.5조 원으로 6.2조 원 증가

□ **(국내보완대책 현황)**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조648억 원 투입

○ 농축산업분야 투융자 예산은 한·미 FTA 대책을 시작으로 2016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까지 총 37조4,814억 원이 계획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5개 정책목표(직접 피해보전, 축산 경쟁력 제고,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신성장동력 창출)로 95개 사업으로 구성

□ **(국내보완대책의 사업별 성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대체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2016년 농가소득은 3,720만 원으로 국내보완대책이 시작된 2008년 3,052만 원에 비해 21.9% 증가

○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사업은 가축 사육마리수 증가와 축산부문 농가소득 향상 등의 축산업 성장에 기여(축산업 농가소득은 2008년 4,640만 원에서 2016년 7,743만 원으로 성장)

○ 과수·원예 경쟁력 강화 분야 사업은 과일 재배 면적 증가와 단위 생산량 증가 등의 과수·원예 산업 성장에 기여(과일 재배 면적은 2008년 1,609ha에서 2016년 1,665ha로 증가, 같은 기간 과수농가 소득은 3,042만 원에서 3,443만 원으로 증가)

○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분야 사업은 신규 농업인력 양성, 농업경영체 강화,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농지연금 확대, 영농 규모화 등의 성과 발생(후계농업인 정착률은 2008년 92.8%에서 2016년 99.1%로 6.3%p 상승, 농기계 임대사업은 참여농가의 재배면적 증가에 대한 기대소득이 미참여 농가에 비해 평당 1,006원 높은 것으로 조사)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 사업은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종자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등의 성과 발생(주요 품목의 국산품종 보급률은 2008년 25.3%에서 2016년 51.0%로 증가, 같은 기간 농산물 수출액은 38.5억 달러에서 66.8억 달러로 증가)

○ 직접 피해보전은 피해보전직불 사업과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가격 하락 충격을 완화하고, 폐업·전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

□ **(국내보완대책의 생산효과)** 보완대책 95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 집행액은 4조5,551억 원이고 생산액 증가효과(20년 간) 5조2,714억 원으로 집행액 대비 생산증가 효과가 115.7%로 계측

○ 생산액 증가효과 분석치는 일부사업(10개)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이 용이한 사업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종합적 평가로 보기에는 한계 존재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3.2. 수산업 부문

□ **(수산물 양허내용)** 한·미 FTA의 수산물 자유화 수준은 100%로 다른 FTA에 비해 높은 수준

○ 바닷가재, 명태연육, 어란·어분 등 일반 품목은 7년 이내 철폐하되 명태(냉동), 기타넙치(냉동), 민어(냉동)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거나 TRQ 적용

□ **(수산물 교역현황)** 한·미 FTA 발효후 5년간 수산물 교역은 대체로 상호 균형을 유지하며 수입과 수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 수산물 수입은 발효전 5년(2007～11년) 평균 1.37억 달러에서 발효후 5년(2012～16년) 평균 2.25억 달러로 64.0% 증가, 수출은 발효전 5년 평균 1.33억 달러에서 발효후 5년 평균 2.20억 달러로 64.7% 증가

○ 관세 인하 또는 TRQ로 명태, 바닷가재, 어란·어분, 가자미, 대구, 먹장어 등의 대미 수입은 증가한 반면, 관세 인하보다는 전략적인 수출 확대 노력, 생산 호조 등으로 김, 어빨고기, 오징어, 넙치 등의 대미 수출 증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수산업 생산피해 추정)** 균형대체모형(EDM) 분석 결과, 한·미 FTA로 인해 명태, 가자미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생산이 연평균 242억 원 감소

※ 다만,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김, 다랑어 등의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을 연평균 72억 원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

□ **(국내보완대책 현황)** 한·미 FTA로 인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어업인의 소득기반 창출을 위해 1조300억 원 규모의 국내보완대책 수립

○ 직접피해보전 846억 원, 산업경쟁력 강화 2,629억 원, 어가경영안정화 816억 원,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6,011억 원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은 27개

○ 세부사업 중 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3,186억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1,185억 원), 수산물수출전략품목 육성(947억 원),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3,186억 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투융자 예산은 1조25억 원이고 집행실적은 8,876억 원으로 88.5% 집행

<한·미 FTA 수산업분야 국내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억 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
직접피해보전	131	105	65	65	80	80	78	77	68	49	846
경쟁력강화	117	149	107	76	156	445	500	319	300	255	2,629
어가경영안정화	-	-	-	-	18	29	255	294	102	118	816
지속가능한 어장환경구축	216	282	294	813	881	996	966	1,035	926	956	6,011
합계	464	536	466	954	1,135	1,550	1,799	1,725	1,396	1,378	10,302

자료: 해양수산부

□ **(국내보완대책의 생산효과)** 생산액 증가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사업(6,644억 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수산물 생산은 연평균 986억 원(시행기간 9년 동안 8,871억 원) 증가

○ 수산자원조성(인공어초시설사업, 자율관리어업육성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으로 연안어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판매액이 증가

○ 양식시설현대화로 양식어업의 경영비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개선

4. 종합 평가

□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의 균형적 확대를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세계 교역둔화 속에서 한·미 FTA는 양국간 상품교역의 확대에 기여; 2012~16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 연평균 대미 수출증가율은 대세계보다 5.7%p, 수입증가율은 5.9%p 높은 수준

-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미 FTA 발효후 5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발효전 5년 대비 38.9% 증가했고, 이 중 6.9~14.0%p는 한·미 FTA의 기여분으로 한·미 FTA가 없었다면 수출증가율은 24.9~32.2%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한·미 FTA 발효후 5년간 연평균 대미 수입액은 발효전 5년 대비 14.7% 증가했고, 이 중 5.4~7.0%p는 한·미 FTA의 기여분으로 한·미 FTA가 없었다면 수입증가율은 현재의 절반을 조금 넘는 7.7~9.3%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

○ 한·미 FTA에 기반을 둔 양국간 상품교역의 증가는 한·미 FTA 발효이후 양국 수입시장에서 각국의 점유율 확대로 실현

-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2.6%→2016년 3.2%로 0.6%p 증가,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 역시 2011년 8.5%→2016년 10.7%로 2.2%p 증가

○ 한·미 FTA 효과가 금액 기준으로 대미 수입보다 수출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FTA 발효이후 대미 교역증가 중 FTA 효과의 비중은 대미 수입에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미 FTA가 양국 상품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

- 한·미 FTA에 따른 대미 수출증가액은 연평균 31.6억 달러~66.3억 달러, 대미 수입증가액은 20.1억 달러~26.6억 달러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한·미 FTA 발효이후 대미 수입증가 중 FTA의 기여도는 36.5~47.4%, 대미 수출증가 중 기여도는 17.2~36.0%

○ 서비스 교역에서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저작권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입이 증가

-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2007~11년 연평균 152억 달러에서 2012~16년 연평균 166억 달러로 9.0% 증가에 그친 반면 대미 서비스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248억 달러에서 291억 달러로 17.3% 증가

□ 한·미 FTA에 따른 대미 수출 확대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FTA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요인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평가

○ 대미 수입 확대의 주된 요인은 관세감축인 반면 수출 확대에는 관세 요인과 함께 관세 외적인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전체 품목에서의 수입 효과 중 77.1%가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에서 발생한 반면 수출의 경우 그 비중은 47.7%에 불과

- 한·미 FTA에 따른 교역 증가가 크게 나타난 수송기기 산업을 살펴볼 때, 전체 품목의 수출 효과 중 관세혜택을 받은 품목에서 발생한 효과의 비중이 33.0%에 불과한 반면, 수입 효과에서는 그 비중이 61.5%로 증가

<교역효과에서 광의의 효과와 협의의 효과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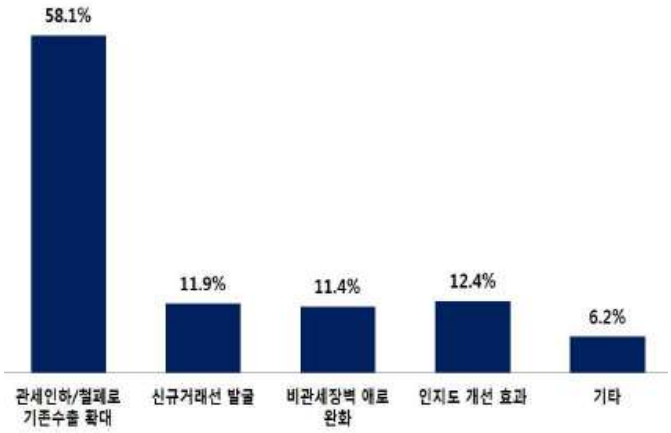
	전산업	농축수산식품	광업	제조업				
				계	화학·고무·플라스틱	철·비철금속	수송기기	기계
수출	47.7	102.6	100.0	46.9	80.6	39.8	33.0	46.9
수입	77.1	100.6	-	69.6	80.8	-	61.5	69.6

주: '협의의 수출입 효과/광의의 수출입 효과'로 계산; 농축수산식품업에서 협의의 효과가 광의의 효과보다 소폭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대미 수출에서 광의의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한·미 FTA를 계기로 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비관세장벽 완화 등 현지시장 여건 개선, 정부와 기업의 시장진출 노력 등의 결과로 해석

- 한국무역협회의 한·미 FTA 활용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기존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신규거래선 발굴,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

<한·미 FTA의 대미 수출 촉진 요인>



자료: 무역협회(2017)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한·미 FTA의 수출활용률이 한·캐나다 FT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수입활용률 보다 높은 것은 한·미 FTA 발효이후 정부와 기업의 대미수출 확대 노력과 성과를 반증

<한·미 FTA 활용률(2017년, %)>

	미국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EU
수출	86.1	77.6	82.2	46.1	67.5	78.2	85.5
수입	70.6	99.5	60.0	75.5	61.5	82.1	76.3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수출	71.9	80.1	93.4	49.7	50.4	35.3	49.8
수입	63.4	85.6	83.6	68.6	87.7	86.5	87.2

주: 활용률=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입실적×100
자료: 관세청 FTA 포탈(fta.customs.go.kr)

○ 2011년과 2016년 전체 교역품목에서 대미 수출품목와 수입품목의 비중을 비교할 때, 한국이 FTA 활용에 보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 개발과 신규 수출기업 발굴을 통해 미국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평가

- 한·미 FTA 발효이후 HS 10단위 기준 전체 교역품목수에서 대미 수출품목수의 비중은 4.5%p 증가한 반면 대미 수입품목수의 비중은 0.9%p 증가

- 전체품목수 중 교역품목수의 비중 증가분은 대미 수출의 경우 대세계보다 2.2%p 더 큰 반면 수입에서는 그 차이가 0.9%p에 그쳐 한·미 FTA가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의 외연적 확장에 기여했을 가능성

<한국의 대미 수출 및 수입 품목수의 변화>

	2011년(A)			2016년(B)			차이(B-A)		차이 (C-D)
	전체 품목수	대미	대세계	전체 품목수	대미	대세계	대미 (C)	대세계 (D)	
수출	11,900개	46.5%	77.8%	12,243개	51.0%	80.1%	4.5%p	2.3%p	2.2%p
수입	11,900개	68.9%	90.1%	12.243개	69.8%	90.1%	0.9%p	0.0%p	0.9%p

주: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미 FTA는 양국간 투자관계의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한·미 FTA 발효후 5년간 한국의 연평균 대미 직접투자는 발효전 대비 61.2%(28억2,800만 달러 증가)했고, 이중 FTA의 기여도는 35.0%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FTA를 계기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특히, 가전제품·부품도매업) 등에서 대미 직접투자 확대

○ 한·미 FTA 발효후 5년간 미국의 연평균 대한국 직접투자는 발효전 대비 184.2%(10억7,900만 달러 증가)했고, 이중 FTA의 기여도는 29.3%

- FTA를 계기로 미국은 운송용기계와 화학공업 등 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 투자 확대; 금융·보험, 정보통신,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도 증가

□ 한·미 FTA 발효후 양국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교역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전 연평균 63.6억 달러에서 발효후 73.0억 달러로 14.8% 증가

○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전 연평균 4.0억 달러에서 발효후 5.9억 달러로 46.7% 증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FTA 발효이후 정부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수출 관세율 인하 등으로 연평균 10.3%의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피해액은 연평균 1,951억 원으로 한·미 FTA 사전영향평가(2011)의 예상치 4,668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

○ 2011년 당시 예측하지 못한 동식물 검역, 미국내 가축질병 발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면서 피해를 축소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농업 경쟁력 향상,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경영 안정, 종자 산업 R&D 강화,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등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 완화와 농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수산업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수산자원 조성, 생산성 증대 등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산물 생산액 증가에 기여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2008~16년 약 1조 원의 투융자 예산이 투입되었고 국내보완대책으로 8,871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 추정

○ 생산환경 악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자원 감소 추세 속에서도 수산자원 조성,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의 효과 시현

□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대미 교역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후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본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5년 동안 FTA 관세혜택 품목의 양국간 교역 확대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후생이 0.27%와 40.9억 달러 증가

○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성의 전반적 개선과 다양한 비가격적 요인에 의한 양국간 교역관계의 강화를 포괄적인 FTA 효과로 간주할 경우 한·미 FTA의 성장 및 후생효과는 각각 0.31%와 54.7억 달러로 증가

○ 한·미 FTA는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농축수산업의 고용 [illegible]성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국내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증가를 통해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 완화에 기여

□ 양자간 무역수지에 초점을 맞춘 FTA 효과 평가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며, 바람직한 FTA 효과 평가를 위해 FTA가 가져다주는 전체 교역 및 경제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

○ 양자간 무역수지 변화는 상대국의 경제적 특성, 우리 산업구조와의 연관관계에 의존

- 원자재와 첨단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우 FTA 상대국이 원자재, 자본재 생산국일 때 수입증가에 의한 양자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 증가

- 상대국이 제3국 수출에 적합한 생산기지일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투자에 이은 중간재 수출 증가로 양자간 무역수지 흑자 가능성 증가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

- 따라서 양자간 무역수지 흑자(적자)의 증가가 교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증가(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

○ FTA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제고와 소비자 후생의 향상으로 이에 기반한 FTA 성과 평가가 필요

- FTA에 따른 수입 중간재와 자본재의 가격하락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대세계 수출 증가와 경제의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

- 물가의 하락과 다양성의 증가를 통한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는 소비자 후생의 증가와 연결

□ 무역수지의 변화를 통해 FTA 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FTA 이행에 따른 승자와 패자를 구분함으로써 경제동반자로서 양국간 협력적 관계 구축보다는 대결적 관계를 형성하는 부작용을 야기

○ 대결적 관점에 기반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운영은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 학술연구는 무역수지 적자 또는 수입 억제를 위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때,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내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품 가격의 상승과 소비 품목의 다양성 감소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

- 예를 들어, 미국 피터슨 연구소(2012)에 따르면, 2009~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타이어 산업내 고용 유지 효과는 1,200명에 불과한 반면 타이어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매업 일자리가 2,531개 감소

조유미 / 국내대책과 / 2018-04-09 23:01:17